

6/19/22

설교 제목: 사마리아 땅에 임한 구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4 장 27-42 절

- (요 4: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절관주** 요 4:8
- (요 4: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 (요 4: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절관주** 마 12:23
- (요 4: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 (요 4: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 (요 4: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요 4: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 (요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 (요 4:35)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 (요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 (요 4: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 (요 4: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절관주** 벰전 1:12
- (요 4: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 (요 4: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절관주** 눅 24:29
- (요 4: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본문은 사마리아인들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후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인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경멸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유대 전통은 랍비가 여자와 공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 4: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논리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믿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지식에 근거해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요 4: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 4: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 4: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신에게 매일 물을 길기위해 필요한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생수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이 땅의 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다고 여기던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버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여인이 달려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 여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 우물은 실상 외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내 치부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 불안해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리어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덮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수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실수까지 다 아시고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동네로 드러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 4: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요 4: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 4: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요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당신께 나오는 광경을 보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 4: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추수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 경멸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시다.

그 지역을 밟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그 지역이 지금 추수하여 거두어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나중에 더 큰 추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할 때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행 8: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행 8: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행 8: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행 8: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인 추수는 사망의 들판에서 은혜의 곳간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요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 4: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 4: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을, 씨뿌리는 자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샅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곧 영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일은 복을 받거나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말 속에는 받았으므로 속히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추수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를 마치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 목회자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즐거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기에 그추수에 대한 공로는 없습니다.

단지 거두기만 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 4: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 4: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요 4: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은 여인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전하기만 했을 뿐 그들을 변화하게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추수꾼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이땅은 희어져 추수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워매여 움츠리며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들 앞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자신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 속 깊이는 자신들도 여인과 같이 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을 따라 그녀를 변화시킨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변하게 하신 분을 만나 보기 원합니다.
자신들도 변화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삽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을 전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때가 되어 받은 희어져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선해 추수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후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행해 추수하러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